

인도네시아어 보어 문장구조 분석:

학자들 시각 분석을 토대로*

임 영 호**

국문초록

인도네시아어 보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¹⁾라고 서술되고 있으나 서술어를 완전하게 혹은 보충한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서술어의 의미가 완벽하게 되는지 추상적인 설명이 된다. 통사적인 면에서 볼 때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설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 여러 학자의 설명을 분석해 볼 때 동사 서술어의 형태 및 기능, 그리고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보어에 대한 문장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보어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형태-통사론적 측면 즉 서술어 구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와 동사의 기능 및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뒤따르는 보어의 다양한 형태를 논할 수 있었다.

이 글의 서술 방법으로 최근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형태적으로 혹은 통사적으로 학자들의 의견 및 잘못된 편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아직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몇몇 형태의 보어 구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보어, 접사, 품사, 성분, 문장구조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인도네시아 학부 조교수

1) Alwi, Hasan dkk. 1998.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Jakarta: Balai Pustaka.

I. 들어가기

문장은 여러 개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어 혹은 구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의미 완성체를 이루고 있다. Verhaar(1978:70-93)는 통사론(sintaksis)을 설명하면서 문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기능(fungsi), 카테고리(kategori), 그리고 역할(peran)의 3단계로 나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어 문법(gramatika)을 설명하는 기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교착어의 특징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어의 문장구조는 “주어 (Subjek) + 서술어 (Predikat) +/- 목적어 (Objek) +/- 보어 (Pelengkap) +/- 부사어 (Keterangan)”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주요 성분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으며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가 있다. 지금까지 이들 기능 중 보어에 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보어를 동반하는 문장구조의 일부 예만 설명하거나 서로 다른 관점만 제시해 왔다.

인도네시아어 대사전 (*Kamus Besar Bahasa Indonesia*)에서 보어의 정의를 보면 “동사 서술어를 보충하는 문장의 요소 (unsur kalimat yang melengkapi predikat verbal)”라고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Alwi, 1998: 38)에서는 “목적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부사어와도 절 혹은 문장의 의미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문법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보어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²⁾:

1.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혹은 절의 형태를 갖는다.
2. 목적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내용을 보

2) Alwi, Hasan dkk. 1998.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Jakarta: Balai Pustaka.

층해 주는 것이다.

3. 수동태로 전환 시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4. *di, ke, dari, akan* 이외의 전치사와 결합 시를 제외하고는 *-nya*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언급한 정의로는 보어에 대한 일부분의 설명은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장 유형에서 보어의 구성성분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어순과 이를 형성하고 있는 각 구성성분의 단어형태는 문장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문장구조를 이루는 각 구성성분은 형태론적인 면에서 접두사, 접미사, 양분 접사, 접요사의 형태가 어근과 결합하여 다양한 품사를 파생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며 구 구조 형태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사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근 동사에 접사를 사용한 파생 단어가 서술어의 문장성분을 이룰 때 문장구조/어순의 결정 및 문장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 Ibu *membelikan* kakak sepatu baru. (어머니가 형에게 새 신발을 사준다.)

서술어 목적어 보어

1a) Ibu *membeli* sepatu baru untuk kakak. (어머니가 형에게 새 신발을 사준다.)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위 두 문장에서 보듯이 동사의 형태는 전체 문장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kan*과 같은 접미사는 어순 및 구성성분의 기능을 결정하고 있기에 문장 기능 연구에

있어 형태-통사론(morfo-sintaktis)적인 면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보어에 관한 기능 설명으로 보어를 수반하는 동사 유형 및 보어의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없이 보어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Ida Bagus(2007:103)는 아래의 예문에서 '*menyejahterakan masyarakat*'을 *bertujuan*의 보어로 보았다.

2) *Pembangunan itu bertujuan untuk menyejahterakan masyarakat.*

주어 서술어 보어

(그 개발은 사회 복지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보어 기능은 학자들의 논리에 따라 부분적인 설명에 한정되어 있거나 같은 문장을 달리 설명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분석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보어에 대해 형태적인 측면과 통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어에 관한 실제적인 모든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태-통사론적인 시각으로 문장 분석을 통해 동사의 유형과 보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보어를 사용하는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고 의미상 동사를 보완해줄 수 있는 형태는 단어, 구, 절 등이 가능한 것인가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II. 보어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 및 분석

문장의 문법 기능을 설명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어 중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어 보어의 특징에 관해 언급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1. Alwi, Hasan dkk.

Alwi dkk. (1998; 38)는 “보어는 목적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부사어와도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절 혹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서술어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보어와 목적어를 구별하였다.

(1) Dia / mendagangkan / barang-barang elektronik di Glodok.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는 Glodok에서 전자 제품을 거래한다.)

(2) Dia / berdagang / barang-barang elektronik di Glodok.

(주어) (서술어) (보어)

(그는 Glodok에서 전자제품 장사를 한다.)

위의 예문을 보면 목적어나 보어 모두 서술어 뒤에 위치하고 있다. 동사의 형태와 접사 형태가 의미 차이를 보이는 데 *berdagang*은 자동사로 보어 **barang-barang elektronik**을 취하여 ‘생업으로 장사를 하다’란 행위를 의미하며 *mendagangkan*은 타동사로 목적어 **barang-barang elektronik**을 취하여 생업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지만 ‘-에 대한 거래를 하다’란 행위를 의미한다. 즉 동사의 형태에 따라 목적어와 보어로 나뉘며 그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Alwi, Hasan dkk.(1998: 329-310)는 다음과 같이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목적어 (Objek)	보어 (Pelengkap)
1. 명사, 명사구, 절의 형태를 갖는다. 2.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3. 수동문으로 전환될 때 수동문의 주어가 된다. 4. 대명사 - nya로 전환될 수 있다.	1.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혹은 절의 형태를 갖는다. 2.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서술어 뒤에 위치하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뒤에 위치한다. 3. 수동태로 전환 시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4. di, ke, dari, akan 이외의 전치사와 결합시를 제외하고는 - nya로 바꿀 수 없다.

이어 서술어가 자동사 (taktransitif), 이중 타동사 (dwitransitif), 그리고 형용사(adjektiva)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에서 보어가 있는 예문들을 제시했다.

- (3) a. Orang itu bertubuh **raksasa**. (형용사)
- b. Negara ini berlandaskan **hukum**. (명사)
- c. Ida benci pada **kebohongan**. (명사)
- d. Dia bertanya **kapan kami akan menengoknya**. (절)
- (4) a. Ibu mengambilkan saya **air minum**. (명사)
- b. Beliau menyerahkan penyelenggaraan pertemuan itu **kepada dia**. (전치사구)
- c. Dia membeli rumah **untuk anaknya**. (전치사구)
- d. Dia mencarikan saya **pekerjaan**. (명사)
- (5) a. Ibunya sakit **kepala**. (명사)
- b. Anak itu pandai **menari**. (동사)
- c. Dia sukar sekali **diatur**. (동사)
- d. Beliau senang **bermain tenis**. (동사구)

(3)의 예문들을 보면 자동사 서술어 이후에 나타나는 품사는 형용

사, 명사, 그리고 절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3c)의 예문에서 *benci pada*와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형용사 + 전치사 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4b)와 (4c)에서 전치사구 *kepada dia*와 *untuk anaknya*를 보어로 취급하고 있으나 전치사 구가 아래 예문에서와같이 위치 이동이 가능한 것을 볼 때 부사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b) Beliau menyerahkan penyelenggaraan pertemuan itu **kepada dia**. ->

Kepada dia beliau menyerahkan penyelenggaraan pertemuan itu.

(4c) Dia membeli rumah **untuk anaknya**. ->

Untuk anaknya dia membeli rumah

(5)의 예문들에서 (5a)는 ‘*makan waktu, cuci muka, balik nama banjir uang*’과 같은 관용구를 하나의 서술어로 볼 수 있으며 (5b, (5c), (5d)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형용사구를 한 단위로 간주하여 전체를 서술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 Ibunya / **sakit kepala**.

(주어) (서술어)

b. Anak itu / **pandai menari**.

c. Dia / **sukar sekali diatur**.

d. Beliau / **senang bermain tenis**.

2. Harimurti Kridalaksana

Kridalaksana (2002: 49-55)³⁾는 “통사론적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구성성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어는 각

성분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며 보어는 완벽한 동사 서술어를 만드는 부분으로 명사, 형용사, 형용사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보어 기능은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든 보어는 서술어의 뒤에 위치한다”라고 서술했다. 이어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보어와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주격 보어 (pelengkap subjek)

Ia / menjadi / **guru.**

(2) 목적격 보어 (plengkap objek)

Pak Guru / menganggap / Tuti / **patung yang bisu.**

(3) 사용자 보어 (pelengkap pengguna)

Ibu / membuatkan / Maria / **baju.**

(4) 행위자 보어 (pelengkap pelaku)

전치사 *oleh*가 생략된 형태에서의 구문

Roti saya / dimakan / **Amin.**

(5) 원인 보어 (pelengkap musabab)

피동의 의미를 갖는 접사 *ke-an*, *ber-*+ 동사+ *-kan*을 서술어로 갖는 문장

Adik / kehilangan / **uang.**

Mobil saya / kehabisan / **bensin.**

Saya / bermandikan / **keringat.**

(6) 특화 보어 (pelengkap pengkhususan)

ber-kan + 명사로 이루어진 파생 동사로 서술어를 구체화하는 명사

3) Kridalaksana, Harimurti. 2002. *Struktur, Kategori, dan Fungsi dalam Teori Sintaksis*. Jakarta: Universitas Katolik Indonesia.

가 보어 기능을 갖는 문장들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했다.

Sarjana / bersenjatakan / **pena**.

Negara kita / berdasarkan / **Pancasila**.

Ia tidur / beratapkan / **langit**.

(7) 상호적 보어 (pelengkap resiprokal)

Irak / masih berperang dengan / Iran.

(8) 설명적 보어 (pelengkap pemerik)

서술어가 명사 파생어인 경우

Dia / bersuami / kaya. (suami kaya)

Ia / beruang / banyak. (uang banyak)

Botol itu / berisi / minyak. (isi minyak)

3. Asul Wiyanto

Wiyanto (2005: 44-48)⁴⁾는 목적어와 보어의 어순 나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불확실하다면서 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했다.

(1) Dia / **mendagangkan** / *kain batik* / di Temanggung.

(그는 Temanggung에서 batik 천을 거래하다.)

(2) Dia / **berdagang** / *kain batik* / di Temanggung.

(그는 Temanggung에서 batik 천 장사를 한다.)

Wiyanto가 제시한 문장 a)의 서술어는 타동사로 명사 *kain batik*은 목적어이며 반면에 b)의 서술어는 자동사로 *kain batik*이 보어가 된

4) Wiyanto, Asul. 2005. *Tata Bahasa Sekolah*. Jakarta Grasindo.

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장성분의 기능은 서술어 동사의 형태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즉 a)에서는 행위자 주어의 직업인지 아닌지는 불 확실하지만 타동사 *mendagangkan*에 대한 목적어로 ‘*kain batik*을 거래하다’의 의미를 갖는 반면에 b)에서는 자동사 *berdagang*에 대한 보어로 ‘늘 하는 행위로 *kain batik*을 팔아 장사로 생계를 꾸리다’의 의미의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술어가 자동사 접사인 *ber-* 및 *ber-kan*과 같은 *hukum*과 *tenis*와 같은 명사 보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지만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 Negara kita berdasarkan / *hukum*. (우리나라는 법을 토대로 한다.)
- Beliau suka bermain / *tenis*. (그분은 테니스 하는 것을 좋아한다.)

4. Djoko Kentjono, dkk.

Kentjono(2004: 1-4)⁵⁾는 보어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제시했다.

- (1) Syamsuri menjadi *dokter*. (명사) (Syamsuri는 의사가 되었다.)
- (2) Rini berlatih *gamelan*. (명사) (Rini는 *gamelan*을 연습한다.)
- (3) Ia sedang belajar *matematika*. (명사) (그는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 (4) Dia bernama *Susi*. (명사) (그는 *Susi*란 이름을 사용한다.)

예문 a)에서 나타나는 자동사 *menjadi*의 명사 보어 *dokter*와는 달리 b)와 c)의 접두사 *ber-*의 의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berlatih*와

5) Kentjono, Djoko. dkk. 2004. *Tata Bahasa Acuan Bahasa Indonesia untuk Penutur Asing*. Jakarta: Wedatama Widya Sastra (1-4).

*belajar*는 자동사이며 습관적인 의미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에서는 접사 *ke-an*을 사용한 자동사 *kehabisan*의 보어로 명사 *bensin*이 사용되었다.

e) Mobilku kehabisan bensin. (명사) (나의 자동차는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아래 예문에서는 타동사 *mengajar* 뒤에 위치하는 동사 *menari*와 *berenang*을 보어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장은 타동사의 목적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동사 형태이지만 문장 내에서의 기능은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 Ibu Rosita mengajar *menari*. (동사) (*mengajar* = *melatih*)

(Rosita 씨는 춤추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g) Dia mengajar *berenang*. (동사) (그는 수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h) Pak Frans merasa *puas*. (형용사) (Frans씨가 만족을 느낀다.)

i) Ia berlari *cepat*. (그는 빨리 뛴다.)

위의 두 문장 h)와 i)에서 자동사 *merasa* 뒤에 위치하는 형용사 *puas*를 보어로 본 반면 자동사 *berlari* 뒤에 나온 형용사 *cepat*은 부사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berlari dengan cepat*에서 방법을 의미하는 전치사 *dengan*을 생략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장성분의 기능을 한정하는 데 있어 동사의 형태와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은 전적으로 접사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j) (x) Kami *mengambilkan* Susi formulir itu.

(서술어) (보어) (목적어)

(우리는 Susi를 위하여 양식 서류를 챙겨 주었다.)

(o) Kami *mengambilkan* Susi formulir itu.

(서술어) (목적어) (보어)

Kentjono는 위의 문장 j) 에서 기능적 측면으로 *Susi*를 보어로 *formulir*를 목적어로 보았다. 이는 문장을 분석하면서 수여 (benefaktif) 기능을 가진 접미사 *-kan*의 기능을 간과한 설명이다. 즉 접미사 *-kan*이 사용되면서 타동사 *mengambilkan*의 목적어는 바로 뒤에 위치되는 명사 *Susi*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즉 타동사 뒤에 명사 + 명사가 연속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수여의 의미를 가진 *-kan*과 여격의 기능을 가진 접미사 *-i*를 취하는 타동사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Sugono (2002: 79-83)는 목적어와 보어의 동질성으로서 보어를,

1) 문장의 서술어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2)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3) 전치사가 앞에 올 수 없다.

라고 설명했고 차이점으로는 ‘보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었다.

k) Hedi memberi saya buku kamus. (능동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Hedi가 나에게 사전을 주었다)

(수동문으로 변형)

-> Saya diberi buku kamus oleh Hedi.

(주어) (서술어) (보어) (부사어)

(나에게 사전을 Hedi가 주었다.)

-> ? Buku kamus diberi saya oleh Hedi.

(책에게 나를 Hedi가 주었다.)

k) Ibu membuatkan Yanti kue. (능동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어머니가 Yanti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수동문으로의 변형)

-> Yanti dibuatkan kue oleh ibu.

(주어) (서술어) (보어) (부사어)

(Yanti에게 과자를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다)

-> ? Kue dibuatkan Yanti oleh ibu.

(과자를 위해 Yanti를 만들어 주었다.)

위의 예문 (j)와 (k)에서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saya*와 *Yanti*이며 *buku kamus*와 *kue*는 보어로 수동문에서 주어라 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수여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 *-kan*과 여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i*를 갖는 특정 부류의 타동사 *me-kan* 및 *me-i* 바로 뒤에 오는 명사만이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되기 때문이다.

5. Widjono, HS.

Widjono (2005: 136-145)⁶⁾는 “보어는 정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문장의 요소로 목적어의 의미를 특화하며 문장의 구조를 보완하

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정의하면서 보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a.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에서 보어 없으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며 정보가 완벽하지 못하다.
- b. 타동사가 아닌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이 같은 간단한 특성 정리는 보어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Widjono 본인이 제시한 아래의 예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1) Ibu / membawakan / saya / oleh-oleh.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선물을 가져왔다.)

위의 예문에서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수여의 의미를 가진 타동사 *membawakan*의 접미사 *-kan*이다. 접미사 *-kan*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치사 *untuk*을 사용하여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untuk*을 사용하면 구성성분의 배열 및 문장성분의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단지 어순 배열만을 생각하여 목적어를 특화한다는 설명은 보어를 설명함에 있어 모호한 설명이 되어 버렸다.

(2) Ibu / membawa / oleh-oleh / untuk saya.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이러한 기본 문장구조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6) Hs. Widjono. 2005. *Bahasa Indonesia* (Mata Kuliah Pengembangan Kepribadian di Perguruan Tinggi. Jakarta: Grasind.

자동사, 수여 동사 그리고 여격 타동사를 사용한 예문을 사용했다.

(3) Ekonmi daerah itu / berdasarkan / pertanian.

(주어) (서술어) (보어)

(4) Ketua partai itu / menjadi / calon presiden,

(주어) (서술어) (보어)

(5) Ibu / membelikan / saya / sepatu.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6) Mereka / menjuluki/ dia / sang penyelamat.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위의 예문 (5)와 (6)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동반하는 *me-kan*을 사용한 수여동사 부류와 *me-i*를 사용한 여격 동사 부류는 접미사의 기능과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Abdul Chaer

Chaer (2009: 20-25)⁷⁾는 “보어는 서술어가 완벽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동사 서술어의 한 부분이며 위치는 목적어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위치하는 반면 보어는 자동사 뒤에 위치한다. 또한 타동사 이후에 위치하는 목적어 뒤에서 동사를 완벽하게하기 위해 보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정의했다. Chaer가 제시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Chaer, Abdul. 2009. *Sintaksis Bahasa Indonesia*. Penerbit Rineka Cipta (20-25).

a. Suaminya *menjadi polisi*.

(주어) (서술어) (보어)

b. Perbuatan itu *merupakan tindak kejahatan*.

(주어) (서술어) (보어)

c. Botol itu *berisi minyak*.

(주어) (서술어) (보어)

d. Guru mengira *dia* anak nakal.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e. Ibu membelikan adik sepatu baru.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위의 예문 a), b), c)에서 *menjadi*, *merupakan*, *berisi*는 자동사 서술어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사 보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예문 d)와 e)는 타동사 *mengira* (-라고 추정하다)와 *membelikan*(-를 위하여 사주다)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장의 목적어 *dia*와 *adik* 뒤에 보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및 보어가 나열되는 문장들은 동사의 의미에 따라 서술어를 보완하는 기능의 보어가 필요한 것이다. e)와 같은 문장에서 *sepatu baru*를 전통문법에서는 제2 목적어(직접 목적어)로 보았는데 Chaer는 타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것만이 목적어로 간주되고 수동태에서 보어는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예문 e)를 수동 문으로 전환하면 목적어인 *adik*만 수동태의 주어로 변환이 가능하며 *sepatu baru*는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f) Adik *dibelikan sepatu baru* oleh Ibu.

(주어) (서술어) (보어) (부사어)

이어 타동사 서술어인 *membelikan* 아닌 *membeli*를 사용할 때 문장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다.

g) Ibu membeli sepatu untuk adik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그러나 Chaer는 타동사 서술어인 *membelikan*과 *membeli* 두 단어의 기능과 의미에 따른 문장구조의 형성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7. Mansur Muslich

Muslich (2010: 123-129)⁸⁾는 문장의 핵심 요소로 동사 뒤에 위치하기에 목적어와 보어의 구별을 간과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 Kakak berlangganan *Tempo dan Hai*.

(주어) (서술어) (보어)

(2) Dia berdagang *sayur-mayur*.

(주어) (서술어) (보어)

(3) Dia mendagangkan *sayur-mayur*.

(주어) (서술어) (목적어)

(1)과 (2)의 예문에서 *Tempo dan Hai*와 *sayur-mayur*는 자동사 뒤에 위치하며 보어 기능을 하는 반면 (3)의 예문에서 *sayur-mayur*는 타동사 *mendagangkan*의 목적어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를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1998: 329-330)에서

8) Muslich, Mansur. 2010. *Garis-garis Besar Tatabahasa Baku Bahasa Indonesia*. Bandung: Refika Aditama.

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유형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Kami *suka* musik dangdut.

(주어) (서술어) (보어)

(2) Bapak kepala sekolah berpendapat **bahwa merokok itu merugikan lahir dan batin manusia.**

(주어) (서술어) (보어절)

(1)의 예문에서와 같이 어근이 불완전 타동사 (semitransitif) 형태로 동사 뒤에 위치하며 의미적으로는 목적어 기능을 갖는 명사를 보어로 보았다. 이와 같은 동사 부류로 *makan* 및 *minum*과 같은 동사가 있다. 예문 (2)에서는 접속사 *bahwa*를 사용하는 절이 보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8. Ade Hikmat dan Nani Solihati

Hikmat & Solihati(2013:27-40)⁹⁾는 “문장의 요소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기능과 역할이라 말하는 통사적 기능을 이루는 데 통사적 기능이란 문장의 구성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어를 말하며 이들 중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를 정확히 갖추면 표준 인도네시아어다”라 언급하며 문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들 구성성분이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보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지만 보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9) Hikmat, Ade dan Solihati, Nani. 2013. *Bahasa Indonesia*. Jakarta; Grasindo (27-40).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1a) Hakim membacakan vonis hukuman.

(주어) (서술어) (목적어)

(1b) Indonesia berlandaskan Pancasila dan UUD 1945.

(주어) (서술어) (보어)

위 두 문장에서 (1b)는 수동문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반면 (1a)는 다음과 같이 수동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2a) Vonis hukuman dibacakan oleh hakim.

(주어) (서술어) (부사어)

(2b) (?) Pancasila dan UUD 1945 dilandasi oleh Indonesia.

그러나 수동태로 전환된 (2a)와 (2b) 예문을 설명하면서 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 즉 (1b) 예문에서 사용된 동사 서술어는 자동사로 수동문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2a) 예문은 어순만으로 볼 때 타동사 서술어 뒤에 나타나는 명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어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2개의 목적어를 어순에 따라 나열할 수 있는 타동사의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예문을 살펴보자.

(3a) Hakim membaca vonis hukuman. (판사가 유죄평결을 읽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 Vonis hukuman dibaca oleh hakim. (유죄 평결을 판사가 읽었다.)

(주어) (서술어) (부사어)

(3b) Hakim membacakan Ø vonis hukuman. (판사가 유죄평결을 (-에게) 읽어주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 Ø dibacakan vonis hukuman oleh hakim. ((-에게)유죄 평결을 판사가 읽어주었다.)

(주어) (서술어) (보어) (부사어)

(3a) 예문에서는 타동사 *membaca* 뒤에 나오는 *vonis hukuman*이 목적어가 되어 수동문에서 주어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3b)와 같은 예문에서는 수여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 *-kan*의 영향으로 목적어가 수여 대상이 뒤에 나와야 하나 생략되었고 의미상으로 *vonis hukuman*은 당연히 보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동문에서 주어가 될 수 없지만 보어 기능은 지속된다. 반면 능동문의 주어인 *hakim*이 수동문에서 부사어의 기능으로 바뀌는 이유는 전치사 *oleh*가 사용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의 이동이 가능 하다.

(4) Oleh hakim Vonis hukuman dibaca

(부사어) (주어) (서술어)

9. S. Efendi dkk.

Effendi, dkk. (2015: 218-232)¹⁰⁾는 “보어란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소개했다.

10) Effendi, S.; Kwentjono. Djoko; Suhardi. Basuki. 2015. Tata Bahasa Dasar Bahasa Indonesia. Banung: PT Remaja Rosdakarya (218-232).

(1) Ini merupakan **hasil kerja keras** selama ini.

(주어) (서술어) (보어)

(2) Beritanya menjadi **simpang siur**.

(주어) (서술어) (보어)

(3) Kami bangga **atas prestasinya**.

(주어) (서술어) (보어)

(4) Relawan memberikan bantuan **kepada para pengungsi**.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절/문장의 주요 성분이지만 부사어는 주요 성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 부사어는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 절/문장의 앞, 중간 혹은 뒷부분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Dia berdoa **siang malam**.

(부사어)

Siang malam dia berdoa.

(부사어)

그러나 제시한 예문 (3)과 (4)에서 각각의 전치사구는 위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보어 기능으로는 잘못된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3a) Kami / bangga / **atas prestasinya**. (우리는 그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다.)

-> **Atas prestasinya** / kami / bangga.

(4a) Relawan / memberikan / bantuan / **kepada para pengungsi.**

(자원 봉사자는 모든 난민에게 도움을 주다.)

-> **Kepada para pengungsi** / Relawan / memberikan / bantuan.

이들은 인도네시아어의 절/문장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보어가 나타나는 예문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 다음과 같이 나열했는데 동사 + 보어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Organ tubuhnya kena **penyakit.**

(6) Dulhakim tampak **tenang.**

(7) Dia bercocok **tanam.**

(8) Semua merasa **bigung.**

(9) Sajak Yudhistira adalah **sebuah lirik.**

(10) Emas merupakan **logam lunak.**

(11) (?) Buku-buku Linus mengalami **nasib serupa.**

(12) Giginya tinggal **dua.**

(13) Keputusan hakim sesuai dengan **tuntutan jaksa.**

(14) Semuanya berlandaskan **Pancasila.**

위의 예문들을 보면 보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동사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13)과 같은 예문에서 *sesuai*와 같은 자동사는 의무적으로 전치사를 동반해야 하는 서술어 형태로 보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dengan tuntutan jaksa*가 도치될 수 없다는 것은 전치사 *dengan*은 동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서술어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1)과 같은 경우 *mengalami*는 타동사 서술어로 *nasib serupa*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보아야 한다.

이들이 잘못 제시한 예문으로 아래의 두 문장에서 전치사구

*sebagai deretan konsep*과 *pada wawasan para cendikiawan*를 보어로 보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전치사구가 의미상 타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수동문으로 전환될 때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언급한 전치사구들은 보어가 아니라 위치 이동이 가능한 부사어로 설명했어야 한다.

(13) Ilmuwan mendefinisikan sains **sebagai deretan konsep**.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 **Sebagai deretan konsep** ilmuwan mendefinisikan sains.

(부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14) Teknologi membawa pengaruh **pada wawasan para cendikiawan**.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 **Pada wawasan para cendikiawan** teknologi membawa pengaruh.

(부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Ⅲ. 맺는말

앞서 다양한 학자의 의견을 살펴보고 보어에 대한 이들의 의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ffendi, dkk.(2015: 218-232)가 보어를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정의하였으나 서술어를 완전하게 혹은 보충한다는 것은 결국 추상적인 설명이 가미되어 있다. 언급한 여러 학자의 설명을 살펴보면 결국 동사 서술어의 형태 및 기능, 그리고 의미 파악이 되어야 보어에 대한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착어의 특징을 갖는 인도네시아어 문장의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 접사의 형태로 *ber-*,

또한 Alwi dkk.(1998: 329-310)는 보어에 대한 기본 정의 및 특징을 서술하였지만 여전히 보어에 관한 다양한 유형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주어진 전치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동사 서술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물론 전치사구의 도치 문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래의 서술어 동사구들은 의무적으로 전치사를 동반해야 하기에 당연히 보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bertemu dengan **pacar**

berdiskusi tentang **masalah politik**

berpikir tentang **ujian akhir semester**

sesuai dengan **pendapat ayah**

percaya pada **kakaknya**

다음과 같은 동사들 즉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의 종류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dik **membuat** / ayah / marah.

Guru **menganggap** / Yanti / rajin.

보어절을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동사들 “*pikir, tahu, percaya, yakin, mengira, anggap/menganggap (bahwa)*”은 접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아래의 문장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

- Anak nakal itu mebuat (bahwa ??) ibunya *marah*.
- Hal itu akan menjadikan (bahwa ???) orang lain *marah-marah*.
- Dia menyuruh (bahwa ???) peragawati itu *duduk dalam berbagai pose*.
- Panitia minta (bahwa ???) para pengunjung *mengisi daftar tamu*.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보어의 기본 개념을 인도네시아어 연구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본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 분석을 토대로 어떤 시각으로 보어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Alieva. N.F. et al. 1991. *Bahasa Indosnesia, Deskripsi dan Teori*. Yogyakarta: Kanisius.
- Alwi, Hasan dkk. 1998. *Tata Bahasa Baku Bahasa Indonesia*. Jakarta: Balai Pustaka.
- Aritonang, Buah, et al. 2000. *Verba dan pemakaiannya dalam Bahasa Indonesia*. Jakarta: Pusat Bahasa Departemen Pendidikan Nasional.
- Bagus, Ida. 2007. *Kalimat Bahasa Indonesia*. Jakarta: Grasindo
- Chaer, Abdul. 2009. *Sintaksis Bahasa Indonesia*. Penerbit Rineka Cipta
- Dardjowidjojo, Soenjono. 1984. *Sentence Patterns of Indonesia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 Press.
- Effendi. S. 2009. *Panduan Berbahasa Indonesia dengan baik dan benar*. Jakarta: Pustaka Jaya.
- Effendi. S.; Kwntjono. Djoko; Suhardi. Basuki. 2015. *Tata Bahasa Dasar Bahasa Indonesia*. Banung: PT Remaja Rosdakarya.
- Hs. Widjono. 2005. *Bahasa Indonesia (Mata Kuliah Pengembangan Kepribadian di Perguruan Tinggi*. Jakarta: Grasindo.
- Hikmat. Ade dan Solihai. Nani. 2013. *Bahasa Indonesia*. Jakarta: Grasindo.
- Kentjono, Djoko. dkk. 2004. *Tata Bahasa Acuan Bahasa Indonesia untuk Penutur Asing*. Jakarta: Wedatama Widya Sastra.
- Kridalaksana, Harimurti. 1985. *Tata bahasa Deskriptif Bahasa Indonesia: Sintaksis*.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_____. 2002. *Struktur, Kategori, dan Fungsi dalam Teori Sintaksis*. Jakarta: Universitas Katolik Indonesia.
- Lapoliwa, Hans. 1990. *Klausa Pemerlengkapam dalam Bahasa Indonesia*. Yogyakarta: Kanisius.
- Muslich, Mansur. 2010. *Garis-garis Besar Tatabahasa Baku Bahasa Indonesia*. Bandung: Refika Aditama.
- Parera, J.D. 2002. *Dasar-dasar Analisis Sintaksis*. Jakarta; Penerbit Erlangga.
- Putrayasa, Ida Bagus. 2007. *Kalimat Efektif (Diksi, Struktur, dan Logika)*. Bandung: Refika Aditama.
- Samsuri. 1978. *Analisa Bahasa*. Jakarta: Erlangga.
- Sarumpaet.J.P. 1977. *The Structure of Bahasa Indonesia* (Third Edition). Melbourne: Sahata Publication.
- Subagyo, P.Ari dan Macaryus, Sudartomo editor. *Peneroka Hakikat Bahasa* (Karangan Muhibah untuk Sudaryanto). Yogyakarta: Universitas Sanata Dharma.
- Subroto, Edi dkk. 1994. *Konstruksi Verba Aktif-Pasif dalam Bahasa Jawa*.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Sugono, Dendy. 2002. *Mahir Berbahasa Indonesia Dengan Benar*. Jakarta: PT Gramedia Pustaka Utama.
- Verhaar. J.W.M. 1978. *Pengantar Linguistik*. Yogyakarta: Gadjja Mada Press.
- Wiyanto. Asul. 2005. *Tata Bahasa Sekolah*. Jakarta Grasindo.

(2018.10.15. 투고, 2018.10.18. 심사, 2018.10.30. 게재확정)

<Abstract>

An Analysis of Complement Structures of a Sentence in Indonesian:

Based on the Analyses of Current Studies

IM Youngho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bstantially analyse the patterns of complements considering the aspects of not only syntax but also morphology since the concept of complement has been used as a term to analyse the components of a sentence.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seemed to be limitations due to the partial explanation or different explanations of the same sentence.

Thus, this paper aims at dealing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sentential components and suffixes to examine the sentence patterns; subject, predicate, object, complement, and adjunct focusing on the terms of complement which has been seen problematic due to incomplete explanations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ame sentence.

Finally, this paper synthesises various opinions of many scholars and integrates them to get explicit and practical patterns of complement of a sentence based on not only syntax but also morphology through close relation between sentential components and morphological suffixes.

252 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Key Words: complements, affix, word class, components, sentence patterns